



맞벌이 가계 자산형성 전략

국제 특허출원 작년 5,900건

전년보다 26% 증가... 세계 4위

각자 번다고 각자 쓰면 평생적자

소득·지출 배우자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자녀 출생전까지 월 수입의 60%는 저축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와 인력의 고급화, 갈수록 높아지는 주거비 등...

가장 큰 원인은 맞벌이 가정의 외벌이 가정에 비해 지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은 막무가내식의 투자에 앞서 반드시 경제적인 통합을 이뤄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돈 문제와 관련해 부부간의 대화가 없는 경우가 많다...

가정은 자녀 출생 전까지 단기간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

예를 들어 남편 소득이 250만원이고, 아내 소득이 200만원인 가정...

이자만 납입하고 있을 때 월 이자 52만원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

소득이 많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외벌이 가정은 맞벌이 가정...

그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북미가 혁신을 주도해왔으나 새로운 혁신 센터는, 특히 동북아에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난 해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특허출원 건수에서 전년에 비해 26.6%...

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06년도 PCT 기준 전세계 특허출원 건수에 따르면...

특히 중국은 전년에 비해 무려 56.8% 증가한 3천910건을 기록, 10위에서 8위로 두 단계 약진했다...

지난 해 전세계 PCT 기준 특허출원 건수는 총 14만5천300건으로 전년 대비 6.4% 늘어났다...

프랜시스 거리 WIPO 사무 부(副)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동북아 국가들의 인상적인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북미가 혁신을 주도해왔으나 새로운 혁신 센터는, 특히 동북아에 부상하고 있고, 이는 특허 시스템의 지형과 미래 글로벌 경제성장의 지형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 회사의 이른바 '건강 침대'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과학기술부가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

8일 과학부에 따르면 건강 침대를 판매하고 있는 A사의 제품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이 일반인에 대한 연간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9%나 높게 측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부는 최근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한 방사능 유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조사를 의뢰해 이 회사의 제품 1개에 대한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부 관계자는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 회사의 제품 2-3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추가로 방사능 유출량을 측정할 계획"이라면서 "조사결과, 방사능 피폭선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재확인될 경우 허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거부는 이 회사의 제품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나 일단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의 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하고 있다...

국내 연구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배아줄기세포 관련 기술이 일본에 수출됐다. 국내 줄기세포 연구성과가 선진국에 정식으로 수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양대의대 김계성 교수팀은 2003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팀과 함께 새롭게 발굴한 마이크로RNA(miRNA) 유전자에 대한 국제특허 실시권을 일본 미쓰비시 레이온사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일본에 수출된 특허기술은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개발된 것으로, 관련 국제특허는 김교수와 ㈜차바이오텍 명의로 출원된 상태다...

이번 계약에 따라 김교수와 차바이오텍은 우선 2억원의 기술료를 받은 다음 앞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5%를 매년 추가로 받기로 했다...

한국 온실가스 감축 비용 2013년부터 2조원 부담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교토협약이 발효된 지 16일 2년째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이 예상되는 첫 시기인 2013년부터 5년간 최대 2조원 가량의 저감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발등의 불 온실가스 규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亞太) 기후 변화 파트너십(APP)에 참가해 일본, 호주, 중국, 인도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의무이행 대신 신기술 개발을 통해 감축요구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하지만 미국의 입장도 국제사회의 압력과 미국 내 산업금융권으로부터의 압력, 민주당의 집권 등으로 변화할 조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방위 압력으로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참여할 경우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교토협약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콜금리 4.5% 동결

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따라 경기회복 주력
외환보유 2,400억달러 해외주식 투자 검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콜금리를 연 4.50%인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콜금리는 지난 8월 연 4.50%로 0.25%포인트 인상된 후 6개월 연속 동결됐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가운데 1월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됨에 따라 경기 회복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급시장에서도 2월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금융위는 회의 종료 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민간소비의 신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건설투자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실물경제를 종합 진단했다...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금통위는 지적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금은 어느 한쪽에 크게 중점을 두기보다 물가와 경기,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균형잡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다"면서 "한은의 외환보유액을 선진국의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재는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수익률을 높인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어떤 통화로, 어떤 지역에 투자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은의 외환보유액은 2천400억 달러에 달한다. 한은은 KIC와 위탁계약을 맺고 외환보유액을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8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2007 MS OS·윈도비스타·익스체인지 서버 발표회'에서 윈도 비스타와 익스체인지 서버 2007 등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임대주택펀드 올해 4천억 조성”

재경부 차관보 '비축형 5천호' 하반기 착공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8일 "올해 계획된 5천호의 비축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4천억원 정도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계획된 비축형 임대주택은 수도권에 시범사업지구로 대상으로 하반기에 착공해 200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보는 "다음주 중 건설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펀드 설립과 운용 등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경부 1차관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책반 회의에서도 TF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과 관련해 "현재 1억8천만 원 수준의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매년 3% 물가상승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매각가격은 3억2천만 원 정도가 되고 과거 우리나라의 실질 주택가격 동향이 나 최근 가격추이까지 감안하면 매각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관련 정부 결정에 대해 "상수원 보호 외에도 하이닉스의 적기투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정부는 상수원을 보호하면서도 반도체시장에서 경쟁우위의 필수요소인 적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환경문제가 없는 지역에 투자를 우선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과 관련해, "상품분야에서는 미국에 자동차 양허인의 실질적 개선을 집중 요구하고 농업분야에서는 우리 측 민감품목의 신속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원산지 인증 등 우리측 핵심 요구사항도 계속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과 관련해, "상품분야에서는 미국에 자동차 양허인의 실질적 개선을 집중 요구하고 농업분야에서는 우리 측 민감품목의 신속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원산지 인증 등 우리측 핵심 요구사항도 계속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과 관련해, "상품분야에서는 미국에 자동차 양허인의 실질적 개선을 집중 요구하고 농업분야에서는 우리 측 민감품목의 신속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원산지 인증 등 우리측 핵심 요구사항도 계속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과 관련해, "상품분야에서는 미국에 자동차 양허인의 실질적 개선을 집중 요구하고 농업분야에서는 우리 측 민감품목의 신속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원산지 인증 등 우리측 핵심 요구사항도 계속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able with 6 columns: Job Name, Department, Posi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roles like '생산관리자 모집', '편집기자 및 디자이너 채용' etc.

주택담보대출·할부금융 1건으로 제한

투기지역에서 주택 할부금융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함께 받을 수 없게 됐다. 주택 할부금융 이용자는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유예기간을 거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할부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이번주 주택할부금융의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할부금융을 포함한 1건의 신규 대출만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아파트 1채는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1채는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 할부금융을 1건 이상 받고 있으면서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장인 80% '현 직장 '평생직장' 아니다 퇴직후 다른 일 하고 싶어'

직장인의 80% 이상이 현재 다니는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여기지 않고 퇴직 후 다른 일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취업·경력관리 포털스카우트(www.scout.co.kr)에 따르면 최근 열린사이버대학교(www.ocu.ac.kr)와 함께 직장인 674명을 상대로 현 재 재직중인 회사를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80.62%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현 직장에서 퇴직 후 '같은 직종으로 이직'(34.42%), '개인사업'(30.42%), '현재 업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직종의 일 시작'(22.85%)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퇴직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자격증 취득'(32.94%), '창업 준비'(14.47%), '학위 취득'(13.80%), '투잡'(10.39%) 등을 꼽았다...

직장인 80% '현 직장 '평생직장' 아니다 퇴직후 다른 일 하고 싶어'

직장인 80% '현 직장 '평생직장' 아니다 퇴직후 다른 일 하고 싶어'